한자성어와 함께 고찰하는 개혁주의 핵심교리 [2]

마부작침(磨斧作針)과 개혁주의 견인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마 17:20, 참고, 마 21:21; 막 11:23; 눅 17:6)에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 믿음이 지닌 위대한 능력을 잘 보여주는 구절로 알고 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타인의 도움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산을 파서 저쪽으로 옮길 만한 지속적인 능력과 지칠 줄 모르는 인내심을 동시에 소유해야 함을 뜻한다. 이런 능력과 인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남송(南宋) 때 축목(祝穆)이 지은 지리서인 〈방여승람(方輿勝覽)〉과 당서(唐書) 〈문예전(文藝傳)〉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당(唐)나라 때 탁월한 문장력으로 시선(詩仙)으로 불렸던 이백(李白)은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을 촉(蜀)나라에서 보냈다. 젊은 시절 도교(道敎)에 심취했던 그는 여러 무리들과 어울려 사천성(泗川省)의 여러 산을 떠돌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학문을 위해 상선산(象宜山)에 들어갔지만 이백은 곧 공부에 싫증이 나게 되어 하산하게 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노파가 냇가에서 바위에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이백이 물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늘을 만들려고 한단

다." 노파의 대답을 들은 그가 기가 막혀서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큰 소리로 웃어버렸는데, 이에 노파는 가만히 이백을 쳐다보며 꾸짖듯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얘야, 비웃을 일이 아니다. 중도에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이 도끼로 바늘을 만들 수가 있단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백은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노파의 말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크게 깨달은 바 있어 산으로 되돌아가서 한 눈 팔지 않고 열심히 글공부에 임하였다고 한다. 그가 고금을 통하여 위대한 시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만 두지만 않는다면" 이라는 인내의 교훈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를 실천에 옮긴데 있다. 이 일화에서 비롯된 '마부작침' 이란 한자성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희망적 교훈을 지닌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독교에서도 마부작침과 비슷한 내용의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인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약 5:7-8).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에 관해서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는 종말을 향한 소망에서 비롯된 인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인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무엇보다 간절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대망의 인내이다. 그렇다면 이 인내에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11절에 밝히는 바와 같이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 인내는 도끼가 언젠가는 바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다른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약속에 근거한 인내,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견인교리의 핵심에 해당된다. 이는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전적 신뢰와,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양면적 사실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는 부정적 차원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며, 또 하나는 자신이 구원받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긍정적 차원에서 비롯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과 기다림의 인내이다. 개혁주의 견인의 교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요구하는 마부작침의 가르침에 포함되지 않은 놀라운 가르침을 담고 있다. 자기 부인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인내야 말로 참된 견인교리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할 수 있는 종말론적 믿음을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믿음에 기초할 때 세상의 그 어떤 시련과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힘을 소유하게 된다. 개혁주의 견인론의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한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그 만큼 믿음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특별한 것이다. 칼빈은 마 21:21을 해석하면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에게 신앙을 둔다는 것은 ...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는 뜻이다. ... 만일 예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너무 임의적인 것으로, 아니면 너무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었을 것이다." (co 45, 585)

이런 차원에서 살펴볼 때, 개혁주의 견인교리가 제시하는 인내에 대한 견해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이다. 이는 인간 능력에 대한 도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다시 고찰하도록

만든다. 만약 인간의 무한 도전과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내가 자신의 긍정적 능력에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는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서 주어지는 능력에 대한 신뢰가 동반될 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구원의 최종목적지까지 달려갈 수 있는 능력과 인내가 발생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 분의 약속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the saints)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마지막 가르침은 단순히 마부작침의 교훈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이를 초월하는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이 원래 지닌 세상을 향한 소욕을 버리는 자기 부인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한 신뢰가 이 교리에 전제되어 있음을 항상 되새겨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개혁주의가 추구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o gloria)이라는 대전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